

## 관화가 오이랑 日 오사카展

24일부터 29일까지 아마노갤러리서

중견 관화가 오이랑씨가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 아마노 갤러리(天野画廊)에서 전시를 갖는다.

오씨는 노르웨이 국제관화 트리엔날레 명예상(1992), 아갈트 국제관화페스티벌상(1998년)을 수상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관화가다.

그의 작업 특징은 실리론을 국수처럼 얇게 썬 뒤 다시 실리론을 화면에 촘촘하게 붙여 넣는 것으로 요약된다. 겹겹의 타원형 동그라미를 통해 '파동과 떨림'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 'EXISTENCE-WAVE'를 주제로 한 연작을 선보인다.

조선대 회화과와 도쿄 다마미술대학 대학원 관화과를 졸업한 오씨는 9차례 개인전, 2004 광주 비엔날레 한국특급, 이집트 국제관화 트리엔날레 등에 참가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existence-wave, 05'

## 화가 박소빈 美 초대展

31일까지 뉴욕 엘가 워머갤러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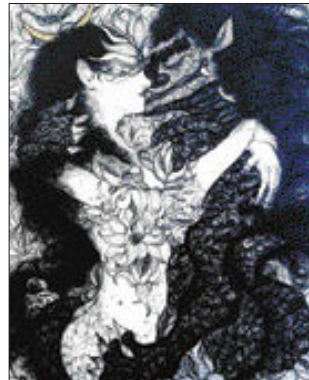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 박소빈씨가 뉴욕 데뷔전을 갖는다. 31일까지 미국 뉴욕 엘가 워머갤러리.

'Figuratively Spaking Part II (상징적표현 II)'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박씨를 비롯 일본, 스웨덴 출신 작가 등 5명이 참가한다. 5명의 작가를 가운데 박씨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지 않는 유일한 아티스트로, 지난 3월 뉴욕 아트 페어에 출품된 그의 작품을 인상 깊게 본 엘가 워머 갤러리 관장의 초대로 참여하게 된 것.

그는 이번 단체전에서 용과 여인,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 6점을 선보인다. 남성적인 용과 나체의 여인이 등장하는 박씨의 작품은 영원불멸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

목포대 출신으로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색채학회, 아트그룹 자유로, 에펠드 목포 회원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설레임'

요즘 눈에 띄는 광고가 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국악 장단에 맞춰 '오~똥똥똥똥, 자~알 똥치는 대한민국'을 신명나게 외치는 광고다.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국악이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국악이 각종 광고와 휴대폰 벨소리 등에 사용되고 국악적 요소를 기미한 대중가요와 창작곡도 만들어지고 있다. 또 퓨전국악도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퓨전국악 전문 음반사도 문을 열었다.



팬과리 등 타악기와 해금, 가야금, 판소리로 신명난 노래를 들려주는 국악그룹 '소리아'

## 에헤라~ 얼썩~ 신명난 우리소리

# 일상속으로 성큼 다가온 국악

### ▲ 광고, 휴대폰 벨소리, 가요 생활의 일부가 된 국악

'어~~ 여 떠나세 팔도강산을 구경가세 /똥어 청춘에 먹고 놀지 늙어지면 못 노나 니'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네티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신인음반으로 뽑힌 신국악단 'SORIA'의 '뷰티풀 코리아'의 일부다. 드라마 '궁'의 OST에도 참여했던 '소리아'는 팬과리 등 타악기와 해금, 가야금, 판소리로 신명난 노래를 만들어 냈다.

공익광고에 출연했던 여성 소리꾼은 서울대 국악과 출신인 이안이다. '대장금'의 주제곡인 '오나라'를 불러 화제를 모았던 이안은 최근 '옛노래'를 응원가 풍으로 바꾼 '아리수' 등을 실은 음반을 냈다.

국악은 광고에도 쓰인다. 얼마전에는 한 대기업의 광고를 통해 베토벤의 '운명'을 국악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색다른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국립국악원(www.nktpa.go.kr)은 휴대폰 벨소리 등을 무료로 제공 중이다. 홈페이지 '생활 속의 우리 국악' 코너에 들어가면 12가지 휴대폰 벨소리를 다운받을 수 있다. 또 국

기에 대한 맹세 등 의식음악과 화교 수업 시작별, 생일축하 노래, 웰빙 음악 등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이거 국악 맞아?

#### 창작·퓨전 국악의 세계

국악과 서양음악의 결합인 퓨전국악도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러 국악기 중에서도 특히 해금의 약진이 눈부시다. 해금은 애절한 음색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고 힙합, 재즈와도 잘 어울리는 게 특징.

'해금의 3 디바'로 불리는 강은일·정수년·김애라의 음반은 꾸준히 팔리고 있으며 특히 재즈 연주자들과 꾸린 '강은일과 해금 플러스'는 지난해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했다.

젊은 해금 연주자 중에서는 일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국악계의 보아' 꽃별, 음반 'In the green cafe'를 낸 슬기 등이 눈에 띈다. 그룹으로는 타악 그룹 '공명'과 대중음악에 국악을 차용한 '바이날로그', 몽환적 느낌의 '그림(the link)', '예술이'로 유명한 이자람의 국악뮤지컬 그룹 '타루' 등이 눈길을 끈다.

가야금 중추단의 연주도 활발하다. '사계' '이우리' '여울' 등은 가야금 창작곡 뿐 아니라 프로코피에프의 곡과 레드 제플린의 '스테일

웨이 투 헤븐'을 연주하는 '파격'을 선보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팝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송기철씨가 국악전도사로 변신, '케이비트 뮤직'이라는 국악전문 음반사를 차리고 힙합·록 등과 결합된 퓨전국악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나섰다.

국악 평론가 윤중강씨는 "국악 대중화를 위해서는 대중음악의 국악화, 국악의 세계화, 세계음악의 국악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 평론가 윤중강씨 추천 퓨전 국악 10선

곡명	연주자	곡해설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정수년	해금을 날리 잃린 곡. 피아노와 해금의 어울림
2 헤이아	강은일	'올해의'를 주제로 한 신나고 경쾌한 연주
3 잿빛 하늘	김애라	노성식의 곡으로 피아노와 해금의 어울림
4 길놀이	그림(the link)	나직한 악기소리가 숲 속의 환상을 열어주는 곡
5 너영내영	바이날로그	재즈 민요를 보시노바 리듬으로 편곡
6 해피니스	슬기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경쾌한 곡
7 꽃별	코리아비타	'군밤타령'을 재미있게 편곡한 작품
8 뷰티풀 코리아	소리아	국악기와 어우러진 판소리와 25현가야금 4대의 앙상블. 민요 '개타령'을 현대적으로 연주
9 새타령	사계	맑고 깨끗한 소금 소리가 돋보이는 곡
10 아침	한충은	

# 6회 광주비엔날레 준비 본궤도



## 개막 50여일 앞으로 전시장 공사 마무리

광주비엔날레 개막 50여일을 앞두고 작품 전시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개막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23일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오는 9월8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전시장 시설과 파티션 공사가 90% 이상 진행됐으며, 전시 작품들도 순조롭게 반입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주 전시장으로 활용될 비엔날레관 1~5전시장은 이달 초부터 전시 시설공사를 시작, 현재 마지막 손질을 거쳐

고 있다. 또 각 작가별 작품이 전시될 공간인 파티션 공사도 다음달 10일 완료될 목표대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비엔날레 재단은 전시장과 작가별 파티션 공사를 완료한 뒤 참여작가를 비롯 전시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작품 현장 설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33개국 109명의 참여작가가 꾸미는 전시행사는 다음달 15일 현장 워크숍을 시작으로 작품반입과 설치를 거쳐 개막

이틀 전인 9월5일 전시준비를 마치고 끝난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개·폐막식 때 열리는 '열린 비엔날레'와 시민작가들이 참여하는 '광주별곡'도 작가 선정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역 및 전국의 작가와 단체,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기획전 '미술오케라'도 참여작가 선정과 전시 구성을 마쳤다.

김홍희 예술총감독은 "무엇보다 비엔날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인 만큼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막 준비와 함께 해외 홍보에도 역점을 뒀다"며 "광주 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미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소리회, 사랑의 화음

24~27일 광주지역 복지시설 찾아 음악회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성악인들의 모임인 한소리회(총예술감독 박미애)가 광주대 교수가 복지 시설을 찾아 사랑의 화음을 전한다.

한소리회는 24~27일까지 베데스다 요양원, 예육원, 행복재활원, 백선 바오로의 집 등 8곳을 방문, '2006 신나는 예술여행-사랑과 희망을 주는 음악회'를 연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연날리기' '홍당몽당' '꼬마자동차 붕붕' '날아라 슈퍼보드', '스와니 강'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와 만화영화주제곡, 교과서 수록곡 등을 준비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최신 가요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 미애 교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유형민·정민정·이윤순·이지영·이승희 등이 출연, 목창·이중창·중창 등 다양한 노래를 춤과 함께 선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7월 9일 공무원

40년 경력교육원

### 보경철직

www.j2v.net

### 공인중개사

www.j2v.net

## 전남고시학원

www.j2v.net

1982-222-5185

### 제주도 자라동 축제

www.j2v.net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www.j2v.net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www.j2v.net

071-1312, 011-604-7357

### 전립선 J2V

www.j2v.net

### 대진바이오테크

www.j2v.net

## 대진바이오테크

www.j2v.net

호남지사 01588-3871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www.j2v.net

### 행정고시학원

www.j2v.net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www.j2v.net

8월 1일